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공유의 장 열렸다

군산대 테크노마켓 개최

군산대학교는 지난 30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제9회 군산대학교 테크노마켓'을 개최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통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한편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군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는 테크노마켓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능력을 증대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허 및 기술 거래 등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캡스톤디자인과제를 통한 결과물을 교내 프리마켓 행사를 통해 판매해 학생들의 창업가 정신도 함양하고 있다.

올해 테크노마켓에는 7개 단과대학 40개 학부 및 학과에서 407개 팀이 참여하였고, 참가팀 중 24팀을 선발해 시상했다.

우수 시상팀에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CEDC(Creative Engineering Design Competition)국제 캡스톤 경진대회 참가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캡스톤디자인 프리마켓을 통한 이윤정출금액은 참여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30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제9회 군산대학교 테크노마켓'을 개최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통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한편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테크노마켓은 단과대학별 우수작품 전시, MAKEBLOCK 로봇창작대회, 진로체험 부스, 캡스톤 프리마켓 독립부스, 창업동아리 및 식품클러스

터 푸드프리마켓, 창의적 공학 입문설계, NCS역량 중심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부스별 모의투자 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예수병원 정년퇴임 예배 진행... 공로패도 수여

예수병원은 지난 30일 4층 예배실에서 정년퇴임 예배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14명의 정년퇴임자를 위해 김철승 진료부장의 기도와 예수병원 합창단 찬양, 정선범 원목실장의 설교로 진행했다.

또한, 정년퇴임 1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예수병원 개원 120년의 영광스런 역사가 이어진 것은 묵묵히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예수병원의 첫사랑을 계승해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신 정년퇴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예수병원의 발전과 영원히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노고를 치하했다.

정년퇴임을 맞은 직원들은 그동안 기쁨, 행복을 나눴던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정년퇴임을 하지만 예수병원 홍보대사로 남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가족 및 예수병원 직장 동료들은 정년퇴임을 축하해주며 눈물 섞인 아름다운 이별의 꽃다발을 건네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영태 기자



사랑의 열매 진안봉사단, 행복꾸러미 360상자 기탁

사랑의 열매 진안군봉사단(단장 김운봉)은 지난 30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행복꾸러미 360상자를 진안군에 기탁했다.

진안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인 행복꾸러미에는 라면과 화장지등 생필품이 담겼다.

김운봉 단장은 "행복꾸러미 나눔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진안이 더 훈훈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소외계층이 따뜻한 연만을 보낼 수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주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눔

완주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재운, 유정희)가 사랑의 연탄을 나눴다.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여명은 지난 30일 (사)따뜻한 한반도의 지원으로 연탄 1000장을 받아 소양면 관내 어려운 이웃 3세대에 연탄을 선물했다.

앞서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총회를 통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결의했다.

연탄나눔 이외에도 저소득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5세대를 선정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정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시협 위원들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소양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에 앞장서 소양면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 오수면 박세춘씨, 사랑의 백미 200kg 전달

임실군 오수면 박세춘씨(58, 봉산마을)는 지난 30일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쌀 20포(200kg)를 기탁했다.

박씨는 오수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세대에게 매년 쌀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귀중한 물품을 전달한 박세춘씨는 "다가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완 오수면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청사 내 화재발생 대비 합동소방훈련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30일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청사 내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화재 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18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순창경찰서 경찰서 자위소방대 및 순창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하여 대피훈련과 더불어 화재진압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 요령과 소화기?내내 소화전 사용 요령 교육을 실시,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직원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였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화재 발생에 따른 자위소방대원들의 화재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진안기독교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진안기독교연합회(회장 강형규 목사)가 지난 30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연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올 1월에는 성금 100만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전달하기도 했다.

강형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내 가족처럼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진안의 꿈나무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정을 내실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정읍경찰, 11월 성과 보고 등 확대회의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수사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 등의 치안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기능별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정읍경찰서는 주기적인 확대회의의 개최를 통해 성과 향상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 한마당축제' 개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회장 김정완)는 지난 30일에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5회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가 주최하고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주관하여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의 자신감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들의 축하무대인 '넌타' 공연과 무형문화재 박동근 선생님 외 제자들로 구성된 호남우도 김제농악보존회의 '종약놀이'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기념 행사에는 현장에서 납뽀된 사명감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종사자 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따뜻한 차와 어묵, 송사탕 등 간식 나눔에 이어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된 이날 축제는 도내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에 충분했다.

김정완 회장은 "축제가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정은 우리의 관계가 끈끈해졌음을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서로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같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보듬어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산구 '공유토지분할측량 우선처리' 간담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처리업무의 효율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직원과 민원봉사실 직원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에서는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에 철저히 대비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공유토지분할 측량민원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완산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이용과 효율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저촉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임실경찰, 119안전체험관 인명구조 훈련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에서는 지난 30일 임실읍 소재 119안전체험관에서 박주현 서장 등 경찰관 및 의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내용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방법 등이었으며, 임실경찰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주현 서장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의 필수 과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기도 하는 등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경찰관 등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매우 유용하며,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혹시나 응급환자를 도와주고도 법적인 책임 문제에 휘말릴까봐 선뜻 위급상황에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행 사마리인인 법 정신을 담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제5조의2)'을 두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